

함평군, 청년 기창업자에 최대 1억원 창업비용 지원

청년 스트리트 캠퍼스 조성 일환
23일까지 5명 추가 모집 선발
관내 만 49세 이하 지역·업종 무관
인구 유입·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장 폐업 리모델링 경우 제외

전라남도 함평군이 청년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대 1억원 내에서 창업비용을 지원한다.
함평군은 청년 스트리트 캠퍼스 조성

사업 일환으로 오는 23일까지 지역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기창업자 5명을 추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함평 청년스트리트 캠퍼스 조성사업’은 빈 상가 등 유휴시설을 창업 공간으로 전환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함평군은 지난해부터 총 19억5000만원을 투입해 청년 창업자에게 창업지원금과 리모델링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

다.

지원 대상은 함평군 관내 신규 창업을 희망하는 만 49세(1975년생) 이하 청년으로 지역·업종에 관계없이 연 매출 1억 2000만원(월 매출 1000만원 이상) 이상인 기창업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프랜차이즈 업체를 운영하고 있거나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장을 폐업하거나 리모델링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23일까지 직접 나비여울림센터(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164, 3층)

방문하거나 전자우편(hpjobs@naver.com)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군은 1차 서류 심사와 2차 발표 평가를 거쳐 최종 합격자 5명에게 창업지원금 700만원과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창에 필요한 리모델링(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신청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 홈페이지(함평소식→타기관 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함평=신재현 기자

21대 대선 투표율 올리기 ‘온함’
영광군, 마을방송·전광판 총동원

전라남도 영광군은 12일 군청 앞에서 직원들과 함께 오는 6월3일 실시되는 제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군민들의 소중한 한 표 행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투표참여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영광군 공직자들이 앞장서 참여함으로써 ‘민주주의는 참여로 완성된다’는 의지를 담아 적극적인 투표를 통해 ‘지역의 미래는 군민 힘으로 만들어 주길 당부’하는 메시지를 군민들에게 전달하고자 추진됐다.

군은 “한 사람의 한 표가 지역의 미래를 바꾼다”는 인식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 공식 SNS를 통한 온라인 홍보, 포스터와 리플렛 배부, 투표 독려 메시지를 담은 영상 제작, 마을 방송을 통한 투표 안내, 청사 및 주요 거점 전광판 송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캠페인을 확대하고 있다.

제21대 대선 사전투표는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영광군 관내 11개 사전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본투표는 6월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관내 41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영광군은 전통적으로 민주적 가치와 공동체 정신이 깊게 뿌리내린 지역으로 군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더 나은 미래를 여는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영광=김도윤 기자

함평군,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11월까지 만 51세~70세 대상 진행
건강 보호·질환 조기 발견 및 예방

전라남도 함평군이 여성농업인의 건강 보호를 위해 특수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함평군은 12일 만 51세(1974년생)~70세(1955년생) 홀수년도 출생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함평성심병원에서 이달부터 11월까지 특수 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진은 반복적인 농작업과 농약 노출 등으로 질병에 노출되기 쉬운 여성농업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질환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검진 항목으로는 △근골격계 질환 △심혈관계 질환 △골절 및 손상 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등 근골격계 및 심혈관계 질환 등 취약질환을 중심으로 총 5영역 10개 항목에 대해 진행된다.

건강검진과 더불어 근골격계 질환, 농약중독, 낙상에 의한 골절, 심혈관계 질환 등에 대한 예방 교육도 함께 제공된다.

검진은 지정병원인 함평성심병원에서 예약할 수 있으며 검진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청, 읍·면사무소 또는 함평성심병원에 문의하면 된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여성농업인은 반복적인 농작업과 농약 노출 등으로 인해 특정 질환에 더 쉽게 노출되는 만큼 이번 건강검진이 질환의 조기 발견과 예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검진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삼기천 일원 환경정화 활동
곡성군 삼기면, 40여명 참여

전라남도 곡성군 삼기면은 최근 한국석유공사 곡성지사, 삼기면 우리동네 복지동대와 함께 삼기천 일원에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40여명이 참여해 삼기천 주변에 방치된 쓰레기를 청소하고 하천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는 폐기물을 수거하는 등 하천 주변을 정화해 깨끗한 지역 만들기에 힘을 보탰다.

한국석유공사는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환경 개선 활동을 실천해 오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참여 범위를 넓혀 삼기면 우리동네 복지동대와 함께 자원봉사를 추진, 민·관·공이 협력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었다.

곡성군 삼기면 관계자는 “삼기천은 지역 주민들이 자주 찾는 소중한 자연 자산인 만큼, 깨끗한 환경 유지를 위한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함과 더불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곡성=김대영 기자



서창농협, 어버이날 온정 전했다
관내 경로당 어르신 800여명 대상

광주광역시 서창농협은 지난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관내 28개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800여명의 어르신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주류, 음료, 과일 등 다양한 음식을 전달하는 나눔 행사를 펼쳤다고 12일 밝혔다.

서창농협의 어버이날 나눔 행사는 지난 2001년부터 25년째 이어온 대표적인 효(孝) 실천 행사다.

이날 행사는 단순한 물품 전달을 넘어 서창농협 임직원들이 어르신 한 분 한 분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꾸며졌다.

김명열 서창농협 조합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고 어르신 공경 문화를 확산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조진용 기자



영산강유역환경청 직원들이 지난 8일 나주시 공산면 가송리 일원에서 ‘수해대비 합동 모의훈련’을 펼쳤다. 영산강유역환경청 제공

영산강유역환경청, 홍수대비 현장 대응 강화 훈련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김영우)이 자연재난 대책기간(5월15일~10월15일) 전 홍수안전주간을 맞아 지난 8일 국가하천 영산강과 고막원천이 만나는 나주시 공산면 가송리 일원에서 ‘2025년 수해대비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12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이번 현장 모의훈련은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소나성 강우 등 영산강 유역에 극한강우 상황을 가정해 홍수피해 발생 시 현장과 담당 공무원의 대응능력과 관계기관 협조체계를 점검하고 강화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이번 훈련은 국가하천을 총괄하는 영

산강유역환경청에서 주관하고 영산강홍수통제소, 기상청, 나주시, 나주경찰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재난상황에서 협업하는 관계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합동으로 진행했다.

주요 훈련상황은 △AI 홍수예보시스템 운영 △미작동 배수시설 복구 △제방 유실 응급복구 등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상황을 가정했다.

최근 도입된 AI 홍수예보시스템의 의사결정 과정을 살펴보고 하천에서 농경지, 가옥 쪽으로 물이 역류하지 않도록 설치된 배수시설이 미작동 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복구 체계를 확인했

다.

최종적으로 극한호우와 태풍내습으로 인한 급격한 수위 상승 시 제방이 유실될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응급복구를 진행하는 절차도 함께 점검했다.

김영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현장대응력 함양과 함께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으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신속 정확한 대응으로 지역에서 2020년과 같은 홍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진용 기자

화순경찰, 주민 맞춤형 범죄 예방 활동

치안 불안 요소 사전 점검

화순경찰서(서장 장승명)는 최근 범죄통계 및 112신고를 분석해 청소년비행 발생지역 등을 중점적으로 방범진단을 실시하고 관내 치안 불안 요소를 사전점검하며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했다고 12일 밝혔다

반복적으로 112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아파트 옥상 내 청소년 비행, 물건투척 등 위험 행위 사전차단을 위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간담회를 통해 옥상환경 개선을 요청하고 경찰서 기능 간 협업으로 예



화순경찰이 최근 범죄통계를 분석해 범죄예방 활동을 펼쳤다. 화순경찰 제공

산을 투입하여 관내 아파트 옥상 6개동에

CCTV와 출입문 12개소에 경고 안내판을 부착하는 등 가시적 방범시설물 설치를 통해 범죄취약지 개선에 힘썼다.

아파트 입주주민과 관내 학교 학생들에게 주요 사례 등을 홍보하며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예방 활동을 계속해서 전개해 나아갈 예정이다.

장승명 화순경찰서장은 “선제적 예방 활동을 통해 취약점을 보완하고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